| 현불 논단 |

코로나 치유 핵심은 '자비'



방영준 교수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코로나19, 빈자에게 큰 고통
부유층 · 빈곤층 격차 더 커져
사회 불평등 구조 심화 전망

니부어 사회윤리 중요성 강조
코로나 치유는 사회정의 문제
핵심은 '평등'에 있음을 강조

붓다 가르침 그 자체도 '평등'
불교적 평등은 모든 존재 해당
자비공동체 구현, 시대적 과제

코로나19의 쓰나미가 계속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지구촌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소위 강대국 또는 문명국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나라들의 취약성과 문제점도 여실히 나타났고, 바람직한 인간 삶의 양식과 시회구조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익사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국가다.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 사회의 문제점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칭해지는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이를 어쩌랴. 코로나는 앞으로 더욱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라인홀드 니부어(R.Niebuhr)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oral Society)〉가 생각난다. 그는 개인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윤리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사회윤리적 과제가 등장한다. 코로나19의 치유문제는 단순한 의학 · 방역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정의의 핵심은 바로 평등의 문제이다. 필자는 불교의 정치철학을 탐구하면서 붓다 다르마의 속제화를 필요치 않는 가르침이 바로 '평등'의 문제라고 보았다. 평등의 문제는 붓다의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일상적이다. 붓다 재세 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매우 놀라운 계몽적인 가르침이라 하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붓다가 말한 중생은 인간 중심적 개념이 아닌 모든 생명과 무생물까지 포함한다. 모든 존재를 자비의 대상으로 보는 생명 평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사회윤리와 사회정의는 바로 '공업(共業)'의 문제와 연결된다. 불교의 업설은 개인 차원의 업과 사회적 차원의 공동의 업까지 포함한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은 개인적인 선업뿐만 아니라 공동의 사회적 업이 뒷받침될 때 성취되는 것이리라. 이것은 바로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이다.

붓다의 연기법과 무아사상에서 불교의 자비 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모든 존재는 시방삼세 존재자들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온 선물이다. 따라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적 연쇄의 존재가 주는 선물임을 깨닫고 다른 존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다른 형태의 모든 존재에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 구현은 이론과 관념으로는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개인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자비 실천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자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섭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긴 여정은 대자대비의 길이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없다. 자비 없는 수행은 없다. 그래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이제 자비의 큰 그릇으로 '자비 정의론'의 지혜를 탐구해 보자. 이것은 자비의 정신을 사회구조와 제도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코로나 치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부처님오신날의 추억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처님오신날 병원 강당 봉축행사를 축소하는 대신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고군분투한 병원 직원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전달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일찍 나와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 80세가 넘은 노보살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자비심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병원장님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처음 병원 법당을 개원한 이래 병원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 상황에 대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20일 불교법당을 개원할 때, 포교를 펼치게 될 기대에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 병원 봉사 환경이었다. 그동안 먼저 들어온 타종교 세력이나 공단 협력 병원으로 들어온 임직원들이 종교의 색채가 강하다보니 불교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왜 여기에 불교가 들어왔나"하는 식의 반응이었다. 환자들마저 이곳은 기독교 병원인데 불교가 있다는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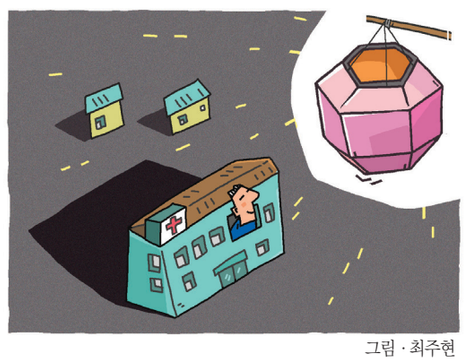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리고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로비에 연등 설치를 위해 병원 측과 여러 번의 이해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연등설치 불가' 였다. 종교 상징물의 설치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 트리는 설치하면서 왜 연등은 설치할 수 없냐"고 항의하자 "크리스마스트리는 연말 행사지만 연등 설치는 종교 행사"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논리였다. 병원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 연등 설치를 허락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다.

나는 경기도신도연합회 회장인 전홍은 회장님께 이 일을 상의한 뒤 불자들과 스님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관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병원 측과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연등을 설치하긴 했지만 병원 측은 그 해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 않았고, 불교 법당과의 갈등 고리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일단락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병원 임직원들이 힘들고 지칠 무렵 병원의 세 종교 원목자들이 함께 십시일반 의료진들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면서 병원과의 냉랭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 직원들을 위한 나눔 행사가 모두 끝나고 오후 늦게 병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저희 직원들을 위해 이렇게 마음 써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돌아온 봉은사 일주문 환영

봉은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일주문이 34년 만에 제 자리로 돌아왔다. 5월 29일 서울 봉은사 경내서 일주문 낙성식이 열린 것이다. 봉은사 일주문은 1880년대 조성된 것으로 1986년 진여문 불사과정서 양평 사나사로 이건됐다. 이어 2011년 양주 오봉산 석굴암으로 옮겨져 석굴암 불이문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일주문 이건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협조한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사부대중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해당 교구본사인 봉선사의 원할한 협의과정이 있었다.

근현대 불교사를 보면 사찰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억불숭유 속에 서원이 되거나 화마에 소실되고, 폐사에 이른 곳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사찰에서 전통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들이 사라지고 방치됐다. 사찰 이전과 문화재 수탈 속에 본래 있어야 할 사찰에 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불교 문화재가 많음은 물론이다.

이번 봉은사 일주문은 이러한 불교 문화재가 제 자리를 찾기 까지 불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중앙부처와 해당 사찰간의 협조, 그리고 사찰 신도들끼리의 교류 등이 그 것이다. 봉은사 일주문은 보물급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찾는 강남 봉은사역 사거리에 위치해 더욱 더 그 가치가 높다. 앞으로 불교 문화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대로 보존 · 활용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봉은사 일주문이 그 첫 시작으로 자리할 것이다. 또한 도심 속 불교문화를 알릴 상징으로 불자들의 원력을 담아 더욱 더 활용되길 바란다.

민추본 창립 20주년에 부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창립한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민추본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분단과 대결, 불신의 남북역사를 화합과 평화, 통일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서원으로 창립했다.

2000년 6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자리해 마음을 보탰다. 불교계 통일운동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기, 조계종 민추본의 탄생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대사회운동의 첫걸음이었다.

분단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과 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서로 다른 체제로 심리적 거리는 멀어졌고 서로에 대한 편견도 깊어졌다. 남과 북의 거리감은 정치적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였다. 그러나 남북 불교계의 만남은 조금 달랐다. 우리민족의 전통종교로서 남북 사람들의 뿌리깊은 동질성을 일깨웠다. 남북간 협력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를 원만 회향할 수 있었던 근원에 바로 신심에 기반한 동질성이 있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단절된 이후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문재인 정부에도 경색국면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 대북교류가 소원해진데다, 종단 안팎의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민추본의 존재감도 희미해지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남북간 정치상황은 언제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민추본은 굳건한 조직, 준비된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갑작스레 닥쳐올 평화의 물결 속 물꼬를 트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수있기 때문이다. 민추본을 향한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스님들의 평안한 수행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님들의 복지와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승려복지법 시행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종단에서는 스님들께 의료비를 비롯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켜 왔습니다.

이와함께 2020년 7월부터는 향후 안정적인 승려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인기본부담금'제도는 늘어나는 승려복지 재원확충 및 승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종단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승려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구족계 수지 후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모든 스님(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제외)

지원 종류

- **입원진료비**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국민건강보험료(일부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 시행일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 납부금액 : 월 10,000원 / 월 5,000원(구족계 수지 5년 이하 - 2016년 이후 수지 : 2020년 기준)

승보공양 후원 동참 안내

승보공양 후원금은 위와 같이 스님들 의료비 등에 지원합니다.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불자님들의 승보공양 동참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앞당겨집니다.

승보공양 동참

- ARS후원 (전화 060-700-1077, 1통화 3,000원)
- CMS (자동이체)
- 계좌이체 후원
  - 농 협 301-0080-9225-91
  - 국민은행 023501-04-176129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승려복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 전화 : 02-2011-1726~7, 1980~1 / 010-2926-1726 / 팩스 02-733-3603
• 주소: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상세한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승려복지) 참조)